

“금속노조 만나 노예의 삶 버렸다”

[사람과 현장] 노조파괴 · 소수노조 차별과 싸우는 계양정밀지회 (1)



“연차 쓴다고 하면, ‘네가 뭔데 휴가 쓰냐’ 라고 그랬어요. 괴롭힘이 너무 심했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죄인 취급하는 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금속노조 덕분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경북 김천에 한목소리로 금속노조를 만나게 돼 다행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계양정밀지회 노동자들이다. 지회 전체 회의에서 만난 조합원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묻어났다.

계양정밀은 터보차저를 만든다. 경북 김천에 본사와 생산 공장, 연구소를 두고 있다. 자동차 엔진에 장착하는 ‘터보차저’는 출력·연비 향상과 매연·이산화탄소 저감 기능을 한다. 계양정밀의 터보차저는 현대차 등 국내 모든 완성차에 들어간다. 수출 물량도 상당하다.

계양정밀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계양정밀 첫 노동조합이다. 김천공장 생산직 노동자 60여 명 중 51명이 가입했다. 신동석 계양정밀지회장은 “처음 상담받으러 가기까지 겁이 났고, 지회 설립을 준비

하며 걱정이 가득했다”라며 “지회를 띄우고 설립총회 장소에 가득 찬 조합원들을 보니 뿌듯했다”라고 지회 설립 당시 소회를 전했다.

원칙 없는 경영,
관리자들의 괴롭힘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가입 계기로 사측의 일관성 없는 현장 운영과 관리직들의 괴롭힘을 꼽았다. 노동자들이 납득할만한 기준 없이 회사 마음대로 근무 태도를 평가하고 수당에 반영했다. 특 하면 관리자들이 막말을 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눈치를 쫓았다. 산업, 특근과 근무 일정을 회사가 정했다. 출근하면 휴대폰을 강제 수거당했다. 생산직 사원은 근속연수가 쌓이면 퇴사를 종용받았다.

임금 문제도 심각하다. 사측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법정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 기준을 바꿨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선에서 맞췄다. 조합원들은 “물량이 늘고 회사는 번창하는데, 노동자들은 십

년, 십오 년 다녀도 시간외수당으로 채우지 않으면 빠듯한 임금이다”라며 속상해했다.

근속이 쌓여도 기본급은 그대로였다. 연차에 따라 근속수당 하나만 올라갔다. 연차 간 별반 큰 차이도 없는데 그나마 아까웠나 보다. 연차가 올라가면 관리자들이 눈치를 쫓는다. 이제 나갈 때 되지 않았냐는 말을 툭툭 내던졌다. 회사를 위해 쏟은 노동자들의 노력과 숙련된 기술은 함부로 내쳐졌다.

계양정밀 노사는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김태수 지회 사무장은 노사협의회의 한계를 경험하며 노동조합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김태수 사무장은 “가족협의회 노동자 대표로 회의에 들어가 보니 노사가 동등하게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며 “사측 일방의 의견을 듣고 심지어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 역시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라며 “현장의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하게 일할 방법은 힘 있는 노동조합, 금속노조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번번이 맞닥뜨리는 노사협의회 한계 ... “그래, 힘 있는

노조가 필요해”

계양정밀 노동자들의 지회 설립 준비 사실을 안 사측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사측은 노동조합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노동자들을 열렸다. 신동석 지회장은 “현장 노동자 의견을 공개기 일쑤이던 사측이 갑자기 노조 안 만들면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꼬셨다”라며, “내 밑에 있으면서 감히 노조 할 생각을 하냐며 으박지르는 관리자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금속노조 깃발을 세우자마자 바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사측은 수년 동안 무료노동을 강요했고, 식사시간을 빼앗았다. 당연한 듯 근무시작 15분 전에 나와 업무를 준비하라고 시켰다. 지회가 ‘15분 작업 준비’를 없앴다.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작업장에 모여 ‘불량제로’ 구호 외치는 일도 사라졌다.

지회는 사측에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내고 첫 단체협약을 준비했다. 조직, 노동안전, 교육선전, 문화체육 등 상무집행위원들을 구성하고 대의원 선출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노동자 스스로 현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다. 육떡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정년퇴직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생겼다.

안타깝게도 계양정밀 자본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불필요하다고 때를 쓰고 금속노조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난색을 보였던 사측은 빠르게 기업노조를 준비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계양정밀지회를 세운 지 열흘이 지나기 전에 12월 23일 기업노조를 만들었다. 노동조합이 한 번도 없었던 계양정밀에 갑자기 두 개의 노동조합이 들어섰다.

사무관리직, 연구직,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생산직들이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은 가짜뉴스를 흘리며 기업노조를 지원했다. 사측은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원청이 물량을 주지 않아 여러 회사가 망했다’, ‘금속노조는 생산직들만을 위해 싸운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기업노조는 사측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받아 앵무새처럼 떠들었다.

금속노조에 사무직, 연구직은 물론 정비, 수리서비스, 식당, 콜센터, 판매 등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이 있다. 지회가 여러 차례 금속노조 때문에 망한 회사가 도대체 어디냐고 따져 물었지만, 사측과 기업노조는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성제영 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이 금속노조를 흔들고 기업노조를 키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정말 화가 났다”라고 야단을 쳤다.

회사 위해 만든 노조? ... 사측, 기업노조로 금속노조 공격

[사람과 현장] 노조파괴 · 소수노조 차별과 싸우는 계양정밀지회 (2)

기업노조는 금속노조 조합원 51명보다 더 많은 69명이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금속노조의 지적과 반발에도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지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사측 지원으로 생긴 노동조합이 과연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을 가질 수 있나. 절대 아니다.

지회는 올해 1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조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69명이라는 숫자를 믿을 수 없고, 대부분 사측 강압으로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인사·노무 담당자들까지 끌어들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아쉽지만 결과는 기각. 경북지노위는 증거가 없다며 지회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 움직임과 가입 강압을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을 지노위는 인정치 않았다.

지노위 심문회의에 나온 기업노조 위원장이 “금속노조가 생겼다는 소식에 회사가 어려워질까 봐 노조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회사를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사실상 자백이었다. 모든 정황이 기업노조의 불법성을 가리켰지만 지노위는 기업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업노조가 사측 도움 없이 김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노조 설립 총회를 할 수 있었을까. 지회 조합원들은 지노위 결정에 분통이 터졌다. 기업노조 임원들이 스스로 노동



자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 근로자라고 칭하는 현실이 참 한심했다. 기업노조가 앞으로 무슨 사고를 칠지 걱정스러웠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사측은 기업노조와 특별단체협약을 맺어 노동자 임금을 도둑질했다. 기존 상여금 650%에서 400%를 없앴다. 기업노조는 어려운 회사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지켰다고 떠들어댔다. 기업노조는 교섭 과정은 물론이고, 합의 서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계양정밀 자본, 기업노조 악용해 임금과 일자리 빼앗아

김태수 지회 사무장은 “전임자와 노조 사무실도 요구하지 않던 기업노조가 갑자기 사측 요구로 특단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라며 “뭔가 제대로 잘못되고 있구나 싶었는데 상여금 400%

를 없애다니 참담했다”라고 털어놨다.

이결로 끝이 아니었다. 사측은 노동자 일자리도 위협했다. 코로나 19 탓에 힘들어 삼십 명을 내보내야 한다고 우겼다. 지회 조합원들은 물량 맞추느라 쉴 새 없이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는데 왜 회사가 어렵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신동석 지회장은 “연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했을 때도 사측은 회사 사정이 나쁘다며 앓는 소리를 했다”라고 꼬집었다.

지회는 금속노조와 함께 회사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사측은 도산 위기 운운했지만, 회사 상황은 절대 나쁘지 않았다. 영업이익이 계속 났다. 코로나 19 때문에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었다. 고용을 우선하겠다고던 기업노조는 사측 입장만 내세웠다.

지회는 동료들을 향해 노동자들이 관둬야 할 이유가 없으니 끝까지

지 버티자고 외쳤다. 성제영 수석부지회장은 “임금이 확 줄고 희망이 안 보인다면 십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지회가 열심히 설득해 다행히 그만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안타까웠다” 라고 말했다.

지회 판단이 옳았다. 회사는 어렵지 않았다. 금방 채용 공고를 내더니 일할 사람을 뽑았다. 회사 임원, 관리자들과 친분이 있는 듯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사측은 8월 첫째 주 여름휴가 때도 물량 맞추느라 공장을 가동했다.

사측은 왜 거짓으로 위기 상황을 꾸며 여러 해 고생한 노동자들을 내쫓으려 했을까. 금속노조를 위협하려고? 지회 조합원들은 “구시대 명령인 반노조 노조파괴 공작과 일관성 없는 비상식 기업 운영이 계양정밀 발전과 현장 분위기를 망친다” 라고 지적했다.

소수노조, 그러나 금속노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악용 탓에 교섭권을 빼앗긴 소수노조는 서럽다. 법이 금지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 사용자는 금속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아니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기업노조에 퍼주며 온갖 차별로 민주노조를 포기하게 만든다.

계양정밀 사측은 최고 S등급부터 A, B, C 등급으로 나눠 연 2회 생산장려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노조 가입 이후 평가 등급이 푹 떨어졌다. 한 조합원은 관리자에게 등급이 낮아진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부품 박스

를 통로에 살포시 두지 않아서” 라는 답변을 들었다.

사측은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잔업, 특근에서 빼고 있다. 금속노조 설립 이전 지회 조합원들은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 출근하면 10시간 넘게 일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제 사측은 초과노동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빼다. 근무 일정마저 현장 관리 목적으로 악용한다.

계양정밀지회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깃발을 내리고 싶은 순간은 없었을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절대 다시 금속노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단호했다. 김태수 지회 사무장은 “더디고 조금 돌아가는 길일 뿐 금속노조가 현장을 바꾼다는 믿음은 여전하다” 라고 강조했다.

지회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로 인한 변화 사례를 쏟아냈다. “관리자들이 막말을 멈췄다.” “집안일로 연차휴가 쓰겠다 미리 말했더니 신청한 대로 처리해줬다.” “휴대폰 강제수거도 중단됐다.” “일하다 다쳐도 숨기기 급급했던 사측이 이제 정식으로 산재 처리를 한다.” “사측 마음대로 하던 부서 이동도 사라졌다.”

계양정밀지회는 격주로 지회 전체 회의를 연다. 지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 장점으로 민주성과 당당함을 꼽았다. 사측 일방 통보에 익숙했는데 금속노조는 달랐다. 정기 회의를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결정 과정 공개했다. 눈치 보지 않고 사측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연대를 알려주고 노동자들 해방한 금속노조, 함께 합시다”

계양정밀지회는 아직 사무실이 없다. 가까운 금속노조 사업장인 한 국오웬스코닝지회 배려로 지회 일정이 있으면 공간을 빌려 쓴다. 신동석 지회장은 “선전전, 교육, 현수막 지원, 투쟁후원금 등 구미지부 사업장은 물론이고 전국의 금속노조 동지들이 계양정밀지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끝까지 가보자고 조합원들과 약속했습니다.” 신동석 지회장은 “특 하면 기업노조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 금속노조를 비난한다. 실상은 사측만 더 배부르게 해주는 짓이면서 말이다” 라며 “우리는 18만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의 연대가 무엇인지 우리 몸으로 배웠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동석 지회장은 “잔업, 특근을 못 해 월급이 줄었지만, 장시간 노동과 노예의 삶에서 해방됐다는 조합원들 얘기에 몽클했습니다. 8월이 다 갔는데 기업노조는 아직 임금·단체교섭 요구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전했다.

신 지회장은 “사무·연구직, 현장직 구분 없이 계양정밀 노동자라면 누구나 환영입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세요 더 많은 동료가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자 단결의 힘을 경험해볼 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정년퇴직합시다” 라고 권유했다.